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낮 뜨거운 애정행각

도심 휴식공간 청소년 일탈 극성

광주전변·운천호수 등... 단속은 전무

20일 밤 10시께 광주시 남구 사동 광주전변 산책로.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나온 시민들 사이로 앳된 얼굴의 남녀 한 쌍이 눈에 띄었다.

1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이들은 수시로 자신들의 옆을 지나던 시민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몸을 밀착시켜 낮뜨거운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었다. 주변에는 40~50대 시민들은 물론 부모의 손을 잡고 나온 어린이들도 있었다.

남광주시장 방향으로 100m 가량을 걷자 이번에는 담배에 불을 붙이는 남녀 청소년 4~5명이 목격됐다. 모두 사복 차림이었지만 한 눈에 봐도 10대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다. 담배를 피우며 산책

로를 따라 걸던 이들을 보고 몇몇 시민들이 잠깐 눈살을 찌푸리긴 했지만 누구도 나무라는 사람은 없었다.

남편과 함께 산책을 하러 나온 이모(여·43)씨는 “매일 밤마다 운동삼아 광주전변을 걷는데 올 때마다 청소년들의 지나친 스킨십이나 흡연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다”며 “민망할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고 말했다.

같은 날 밤 11시30분께 광주시 서구 운천호수. 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시민들 사이로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은 10대 여학생 2명이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쪼그려 앉아 있었다. 주변을 지나던 시민들은 속옷이 보일 듯 말 듯한 짧은

은 치마 때문인지 민망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10분 가량이 더 지나고 운동과 산책을 마친 시민들이 귀가하자 각각 검은색 비닐봉지를 든 10대들이 이곳 저곳에서 물러들기 시작했다. 봉지에 는 어딘가에서 구매한 온 술과 담배가 들어있었다.

이날 친구와 함께 운천호수를 찾은 고등학생 박모(18)군은 “주말이나 휴일에 친구들과 가끔 술을 마시러 공원에 나온다”며 “학생이어서 출입할 수 있는 술집이 있지만 어른들의 시선이 불편해서 공원에 오게 된다”고 털어놨다. 이곳 역시 학생들을 제지하는 사람은 없었다.

도심 공원이 청소년들의 일탈 장소로 전락하고 있다. 본격적인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공원에서 흡연이나 음주 등 일탈 행위를 하는 청소년들이

꾸준히 목격되고 있지만 이를 말리는 사람은 없다.

광주일보가 20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광주지역 도심 공원 5곳을 찾아가 본 결과, 대부분의 공원에서 청소년들의 일탈이 이뤄지고 있었다. 공원 화장실에서는 술병과 담배 캐시가 발견됐다.

그러나 매일 밤 도심 공원에서 발생하는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은 전무한 상태여서 도심 공원을 이용하는 가족단위 시민들은 심한 불편과 불쾌감에 시달리고 있다.

운천호수에서 만난 장모(51)씨는 “도심 공원에서 청소년들의 비행을 볼 때마다 걱정이 된다”며 “청소년들이 더 큰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위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보인다”고 밝혔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농촌봉사활동 퍼는 RCY 단원

21일 순천시 월등면 계월리 한매실마을에서 농촌봉사활동을 펼친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순천지구 대원들은 이곳에서 4박5일간의 일정으로 매실따기 등 농촌일손도 돕고 있다.

21일 순천시 월등면 계월리 한매실마을에서 농촌봉사활동을 펼친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순천지구 대원들은 이곳에서 4박5일간의 일정으로 매실따기 등 농촌일손도 돕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음주 향해 딱 걸렸네

좌초 선박 입항후 충돌 선장 음주사실 밝혀져

한밤 중 암초에 좌초된 뒤 다른 선박의 도움을 받아 목포항으로 예인된 선장이 정박 중 사고를 내는 바람에 음주 사실이 틀렸었다.

목포선적 7.93t급 연안 안강망 어선 H호 선장 김모(48)씨는 지난 20일 밤 10시께 신안군 당사도 인근 해상에서 암초에 걸려 꼼짝 못하고 있다가 예인선으로 목포항까지 예인됐다.

김 선장은 목포항에서 예인선

박종이 폴리자 배를 해빙탑 부두에 계류하다 옆에 있던 다른 선박을 들이박아 파손하는 사고를 냈다.

인근을 순찰하던 목포해경이 영진 순경은 이 황당한 사고를 의심했고, 결국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47%, 만취 상태로 운항한 사실이 틀렸었다.

해상에서 음주 운항 시 5t 미만은 과태료를 부과하며, 5t 이상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의 벌금을 문다. 목포해경은 21일 김씨를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잡아 조사 중이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법정관리 의혹’ 선재성 부장판사 기소

광주지검, 뇌물수수 등 혐의

부적절한 법정관리 의혹을 받은 선재성(49·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가 기소됐다.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광주지검 특수부(김호경 부장판사)는 21일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선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선 부장판사는 지난 2005년 8월 고교·대학 동문인 강모(50) 변호사의 소개로 비상장 회사인 광섬유 업체에 대한 투자 정보를 듣고 5000만원을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 부장판사는 애초 2억원을 투자하려 했다가 1억5000만원은 돌려받

았으며 나머지 금액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투자해 1년 뒤 1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선 부장판사는 또 지난해 9월 자신이 담당한 법정관리 업체 2곳의 공동관리인 4명을 불러 강 변호사를 사건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 변호사는 선 부장판사에게 투자정보를 알려준 혐의(뇌물공여)와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회사의 관리인이 되도록 선 부장에게 말해 주겠다”며 선임료 52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한편 선 부장판사와 강 변호사는 혐의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앞으로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에 대한 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자녀와 함께 살고 싶다” 27% 불과

“노인 취급 말라, 무슨 일이든 자신”

노인건강타운 이용 1000명 여론 조사

상당수 노인들은 자녀와 함께 사는 것보다는 배우자와만 살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녀에게 가장 남겨주고 싶은 것은 ‘화목한 가족관계’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 중 절반 이상이 젊은 사람 못지 않게 무슨 일이든 잘할 수 있으며, 10명 중 7명은 자신을 노인 취급하는 것에 부정적이었다.

광주빛고을노인복지재단(원장 이한일)이 최근 개원 2주년을 앞두고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효령노인복지타운을 이용하는 60~80대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노인들은 행복한 노후를 위한 조건으로 건강한 신체(54%)와 경제적인 준비(24%)를 들었으며 자녀와 부모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자주 연락하고 방문하는 것(43.9%)과 정서적 유대관계를 가진 것(22.2%)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자녀에게 가장 물려주고 싶은 것으로는 50.4%가 ‘화목한 가족관계’, 25%가 ‘삶의 지혜’라고 했으며 유산은 10.6%에 불과했다.

자녀와 함께 살고 싶다는 노인은 27%에 불과했으며, 실제로 조사에 참여한 노인 중 62%가 배우자와 살고 있고 16.2%는 혼자 살고 있었다. 1000명 중 721명의 노인이 건강을 위해 꾸준한 운동을 하고 있으며 931명의 노인이 건강검진이나 예방프로그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재정적으로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노인은 75.1%였고, 노후준비자금에 충분하다는 노인도 51.1%에 달했다. 매달 평균 수입은 50만원 미만인 35.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100만원 미만(23.6%), 100만~200만원 미만(19.9%), 200만~300만원 미만(11.7%), 300만원 이상(7.6%)이 뒤를 이었다.

매달 평균 용돈은 30.1%가 10만~30만원 미만, 15.4%가 10만원이 미만이라고 한 반면 80만원 이상이라고 답한 노인도 14.7%였다.

/윤현식기자 chadod@

폭설피해 복구비 부정 수령

함평군청 직원 등 5명 입건

함평군이 폭설피해 복구비 일부를 지원대상이 아닌 공무원 등에게 지급했다는 광주일보 보도(2011년 4월 13일 6면)와 관련해 수사를 벌인 경찰이 관계 공무원 5명을 입건했다.

함평경찰은 21일 폭설피해 복구비 지원 대상이 아닌에도 불구하고 복구비를 받은 함평군청 직원 박모(48·7급)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대상이 아닌 농가에 폭설 복구비를 주는 등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함평군청 직원 박모(48·7급)씨 등 공무원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공무원이 폭설피해 복구비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150만원을 군으로부터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 공무원 4명은 폭설 복구비 총 1700만원을 7개 농가에 잘못 주거나 과다하게 지급한 혐의다.

경찰에서 이들 공무원은 “폭설피해 복구비 지원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저지른 업무상 실수일 뿐 청탁이나 금품은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비대상자에게 지급된 1700만원을 포함해 모두 16개 농가가 지원 기준과 달리 부당하게 수령한 폭설피해 복구비 4550만원을 환수하도록 함평군에 요청할 방침이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황은희기자 hwang@

촉제 지원금 3천여만원 횡령

순천시 공무원 3명 적발

순천경찰은 21일 국가 보조금을 횡령한 K(57·5급)씨와 H(46·8급)씨 등 순천시청 소속 공무원 2명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C(49·6급)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 3명은 지난해 11월에 전남·경남·부산 등 3개 시·도 지자체가 협의해 구성한 ‘남해안 3개 시·도 관광협의회’로부터 지역관광활성화 목적으로 지원받은

8800만원 중 3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이들은 지원금이 지급되는 축제 등에서 실제 시연하지 않은 전통복식 체험을 시연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하거나, 시연할 경우에는 시간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지원금을 타내 부서 회식비나 사적 용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나원침 (8341) 김장두



‘13만원 월급’ 성화대

교과부, 진상 조사

‘13만원 교수 월급’으로 빈축을 산 강진 성화대학을 상대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진상조사에 나선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21일 성화대의 교직원 급여 지급 논란과 관련해 곧 실제 파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재정난으로 월급을 제대로 주지 못했다고 대학 측이 밝힘에 따라 대학 법인의 재정 현황과 이번 달 급여 지급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또 일부 교수의 주장처럼 법인이 교비를 빼돌린 정황이 드러나면 환수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대학 설립자 이모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이에 대해 빛 대신 대학을 넘겨받아 법인 재산 가운데 상당 부분은 임시로 받아놓은 가수금에 해당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2년전 성형수술로 시력 저하” 소란

○2년 전 농가에 성형수술을 받은 20대 여성이 수술 때문에 시력이 나빠졌으며 갑자기 병원을 찾아와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서행.

○21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A(여·29)씨는 지난 20일 오후 5시5분께 광주시 서구 한 병원에서 거울을 던져 깨뜨리고, 컴퓨터 모니터를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약 2년 전 이 병원에서 일병 ‘알 트림’ 수술을 받은 A씨는 경찰에서 “수술 이후 눈의 초점이 흐려지고, 두통도 생겼다”고 주장.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 14만 합격자가 말한다 ★★★★★

2012
학년도

대학편입은 김영과 함께

상위권 대학편입대비, 자타공인 대한민국 No.1

편입영어(이론과정/문제풀이)

자연계열 편입합격의 열쇠, 지방 유일 실강의!

편입수학(미,적분과정/선형대수)

전남대 편입 Hot Point!, 전남대 맞춤형 Teps-

Teps大 개강 (Teps + 면접대비)

편입합격자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기여편이하인
모인보구권

광주 동부경찰서 뒤 (062) 227-8088

www.kimyoung.co.kr

개강 : 7월 1일